

제2순환도 민자구간 2곳

광주시 보전금 인하 추진

운영사와 협상... 연간 150억서 100억으로

광주시가 연간 150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는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보전금을 100억원 정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운영회사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들어간다.

시는 최근 번호사와 회계사, 시민단체·의회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팀'을 발족한 데 이어 26일 협상팀 1차회의를 가졌다.

협상팀은 앞으로 2~3차례의 회의를 거쳐 오는 9월12일까지 협상을 안

확정지는 뒤, 올 연말까지 민자도로 운영회사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상팀은 이 같은 협상을 통해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을 156억원(지난 해 기준)에서 100억원~110억원 규모로 낮춘다는 계산이다.

협상팀은 먼저 수익률의 경우 협약 당시에는 세후(세금년 이후) 실질수익률을 적용해 1구간은 9.34%, 3구간은 7.61%였으나 2004년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최근 협약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세전 실질수익률로 7.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 인하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차입이자율은 협약 당시 1구

률 인하 및 보장기간 단축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투자 조건 변경 등이다.

협상팀은 이 같은 협상을 통해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을 156억원(지난 해 기준)에서 100억원~110억원 규모로 낮춘다는 계산이다.

협상팀은 먼저 수익률의 경우 협약 당시에는 세후(세금년 이후) 실질수익률을 적용해 1구간은 9.34%, 3구간은 7.61%였으나 2004년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최근 협약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세전 실질수익률로 7.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 인하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차입이자율은 협약 당시 1구

간은 11.2%, 3구간은 9.42%를 적용했으나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5~6% 정도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추세를 반영할 예정이다.

수입보장기준은 협약 당시 1구간은 통행량 예상치의 85%(28년 보장), 3구간은 90%(30년)를 보장토록 돼 있지만 최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등 10년만 보장토록 돼 있어 보장을 및 보장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시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상장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처분)'에 의해 협약 해지 및 관리운영권 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1구간과 3구간의 현재 가치는 약 3천200억원~3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2순환도로 4개 구간 중 민자로 건설된 '두암IC~소태IC(1구간중 5.63km)'구간과 '효덕IC~종암지구(3구간중 3.5km)'구간에 대한 2005년 재정보전금은 156억원이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비하 발언 광명시장 대한민국 떠나라"

호남향우연합회 한나라 경기도당 방문

출당조치 요구... 거부땐 연대투쟁 시사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호남향우연합회 등 전국 호남향우회 회장들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간장을 조장한 이 사장은 850만 출향 호남인과 광명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호남향우회 연합회는 특히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항의 방문해 이 시장 출당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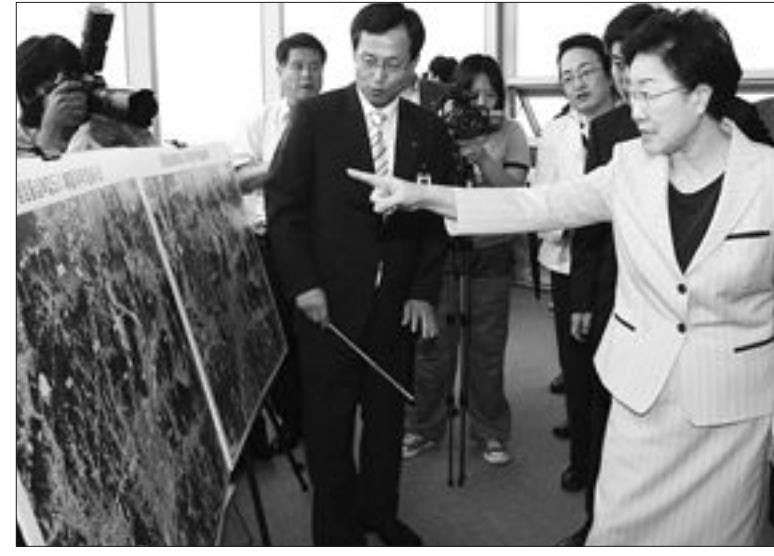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출향 호남인들과 연대해 투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호남향우회 이철호 회장은 "전라도 사람들 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놈들'이라는 욕을 머리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호남향우회는 조만간 강제석 담 대표 등 한나라당지도부와 면담, 이 시장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기 하는 한편 주민소환제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명시의회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4명은 "한나라당이 이 시장 출당 조치 할 때 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총리가 26일 오후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홍보관을 방문, 이날 도시건설 기본계획안이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항공사진과 실제 지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총리

한나라당

경기도당

호남향우회

한나라당

한나라당